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신라 왕경을 찾아서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대릉원	신라라는 이름의 유래	<p>신라는 여섯 부족의 군장들이 혁거세를 추대하면서 건국되었습니다.</p> <p>22대 지증왕 때는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확정되었고, 23대 법흥왕 때에는 불교를 공인해 찬란한 불교문화의 막을 올렸습니다.</p> <p>경주는 백제, 고구려를 병합하고 그 후 나라를 고려에 넘기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경주를 천년왕국 신라의 서울이라고도 말해요.</p> <p>경주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예요. 천년 왕국을 얻은 왕건은 아주 경사스러운 고을이라는 뜻에서 처음으로 경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p>
	산일까? 무덤일까?	<p>여러분 제 앞에 산같이 큰 고분이 보이시나요? 경주 시내를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들 사이로 우뚝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고분이에요. 그중에서도 이 곳 대릉원은 신라시대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 23기가 모여 있어 경주에서 능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p>
	미추왕에 얽힌 전설	<p>신라는 세 성(박, 석, 김씨)의 왕이 번갈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신라의 첫 번째 김씨왕인 미추왕릉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추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유례왕 때의 일입니다. 이서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신라의 수도인 금성으로 쳐들어 와 신라가 궁지에 몰렸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투구에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이서국 군대를 물리치고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후에 미추왕의 무덤 앞에 대나무 잎이 소복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돌아가신 미추왕이 도와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나타났다고 하여 죽현릉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p>
	무덤의 이름이 달라요	<p>신라의 무덤은 똑같이 생긴 무덤일지라도 표현형식이 다릅니다. 신라의 무덤은 능, 총, 묘, 분으로 구분지어 부르는데</p> <p>능 : 임금의 무덤 또는 왕비의 무덤으로 전할 때</p>

해설주제	세부시나리오	
대릉원	무덤의 이름이 달라요	<p>총 :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규모가 큰 무덤(황남대총, 서봉총, 금관총, 금령총, 호우총, 식리총, 천마총)</p> <p>묘 : 임금이 아닌 자의 무덤, 김유신묘, 김인문묘, 설청묘, 간묘 등</p> <p>분 : 발굴되지 않은 옛날 무덤</p>
	두 개의 큰 무덤	<p>황남대총이란 이름은 경주 황남동의 커다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황남대총은 길이가 120m, 폭이 84m, 높이가 23m인 거대한 무덤으로 두 개의 능이 나란히 붙어 있어 쌍봉무덤이라 하거나, 표주박 같이 생겼다고 표형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왕의 무덤인지 왕비의 무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능은 왕과 왕비의 쌍무덤으로 추정 되는데, 발굴 결과 남쪽에는 많은 무기들이 출토되어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북쪽은 금관을 비롯하여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여자용 장신구가 많이 출토되어 왕비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60세 전후의 왕으로 생각되는 남자 뼈와 함께 순장한 것으로 짐작되는 20대 여자의 뼈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p>
	천마총에 숨겨진 비밀	<p>천마총으로 이동하기 전 제가 천마총과 황남대총에 숨겨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1973년 경주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황남대총을 발굴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기술로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먼저 작은 무덤을 발굴하기로 했어요. 그 작은 무덤을 발굴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천마총이었습니다.</p>
	천마총 무덤의 형식	<p>먼저 천마총의 무덤 형식을 볼까요?</p> <p>4C 후반에서 6C 초반 사이 마립간시대 신라의 전형적인 무덤형식인 돌무지덧널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시신을 넣은 관과 부장품을 평지 위에 모래와 자갈로 만든 토대위에 놓습니다. 아울러 시신의 머리맡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귀금속 등을 놓고 다시 나무 널로 덧대어 놓습니다. 이것을 목곽, 우리말로 덧널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굵은 돌을 겹겹이 쌓고 빗물이 새지 않도록 점도를 얇게 바르고 흙으로 봉분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돌무지덧널무덤이라고 합니다.</p> <p>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돌방무덤형식이 많은데요, 돌방무덤이란 돌로 벽을 쌓아 방을 낸 무덤이랍니다. 따라서 방으로 가는 입구나 통로가 있게 마련이고, 이것만 찾으면 깨문거리와 같은 유물을 쉽게 꺼낼 수 있어 도굴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의 무덤은 많이 도굴되어 유물이 많이 없어졌지만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은 도굴할 수가 없어 도굴꾼들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답니다.</p>

해설주제	세부시나리오	
대릉원	<p>천마총 무덤의 형식</p>	<p>천마총은 대능원의 고분 중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는 고분입니다. 부장품 가운데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말이 그려져 있었기에 천마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천마총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만든 고분으로 추정되며, 금관, 음모자, 새날개 모양 관식, 금허리띠, 금동으로 된 신발 등이 피장자(묻힌 사람)가 착용한 그대로 출토되었습니다.</p> <p>천마도는 신라 무덤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신라인들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마총 금관은 국보 제188호로 전형적인 신라금관입니다. 신라금관은 머리위에 두르는 넓은 관테에 4개의 출(出)자 모양세움 장식과 뒷면에는 사슴뿔 모양이 2줄로 있는 형태입니다. 원형 금관과 굽은 목을 달아 장식하였고 금실을 꼬아 늘어뜨리고 금관장식을 촘촘히 연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테 아래로 나뭇잎 모양의 늘어진 드리개 2가닥을 달아서 장식하였습니다.</p>
침성대	<p>지혜로운 선덕여왕</p>	<p>선덕여왕은 27대왕입니다. 여성으로 처음 왕위에 올랐기에 신라에서는 반발이 컸고, 멀리 당나라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의 신분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라에서 여자가 왕으로 추대되었을까요?</p> <p>당시 신라는 성골출신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성골이란 진골 가운데 특별히 진평왕계 혈통에게만 붙여진 이름으로 진평왕의 혈통이 석가모니의 혈통과 일치한다는 이념에서 나온 것 입니다. 진평왕의 이름을 백정, 어머니 이름은 마야부인인데 이는 석가모니 부처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과 일치된 것입니다. 진평왕 때는 신라의 왕실과 석가의 가문이 일치한다는 의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라를 이끌었는데, 이대로라면 선덕왕은 곧 석가모니 부처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선덕이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p>
	<p>침성대가 만들어진 이유</p>	<p>여러분 침성대는 왜 만들었을까요?</p> <p>선덕여왕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여 미리 국가의 장래를 점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침성대를 지었습니다. 또한 신라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대부분 농사였기 때문에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신라 백성들에게 아주 유익한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풍년을 기원하였답니다.</p>
	<p>침성대에 숨겨진 과학적 신비</p>	<p>침성대가 선덕여왕 재위 당시 만들어 1300여 년간 그 위용을 지켜 왔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으며 처음 만들 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천문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p>

해설주제	세부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첨성대</p>	<p style="text-align: center;">첨성대에 숨겨진 과학적 신비</p>	<p>첨성대는 기단부, 원주부, 정자부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선조들의 우주관인 천원지방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둥근 원통형의 원주부는 모두 27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입구로 알려진 남쪽창이 중앙 3단에 걸쳐 있으며 나머지 24단이 1년의 24절기를 아래위 12단은 1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p> <p>전체 돌의 개수가 362개로 음력의 날 수와 일치하는 등 천문관측과 관련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평지에 있어도 별이 관측될까?</p>	<p>첨성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천문대라고 하면 보통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첨성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별들이 잘 보이는 높은 곳이 아닌 평지에 세워 두었을까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대기오염도 없고 밝은 전광판의 불빛이 없기 때문에 평지라도 별을 관측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금이 사는 궁궐 근처에 세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어떻게 별을 관측했을까</p>	<p>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 바로 별을 어떻게 관측했을까? 인데요. 지상에서 남쪽 창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아래 부분에서 12단까지 돌과 자갈로 채워져 있어서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첨성대 안에서는 19, 20단에 놓인 정자석에 다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25, 26단의 정자석까지 또 사다리로 올라가면 27단인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맨 위쪽에는 4~5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앉아 별을 관측했는데 별을 관측하던 기구를 망통이라 하며 관측하는 사람을 일관이라고 불렀습니다.</p> <p>자, 그럼 재미있는 설화를 들으러 계림으로 이동하시죠.</p>
<p style="text-align: center;">계림</p>	<p style="text-align: center;">김알지의 탄생설화</p>	<p>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을 부르는 이름이 몇 개 있어요, 시림이라고도 하고 계림이라고도 해요. 건국 이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숲이 여러 곳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던 아름다운 고목나무들이 울창 한 이곳을 시림이라 불렀습니다. 시림은 여러 숲 중에서도 처음 시작된 숲 또는 근본이 되는 숲이라는 뜻이죠.</p> <p>탈해왕 4년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금상자에서 탄생 한 이후부터 닭계(鷄)자를 써서 계림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후 알지의 7대 후손이 왕에 올랐는데 그가 신라의 첫째 김씨 왕인 미추왕입니다. 이후 내물왕 때부터 김알지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계림을 신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김알지 탄생 비가 있고 내물왕의 능으로 전하는 무덤이 있습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p>신라의 궁궐터</p>	<p>월성의 이름은 그 모습이 반달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신월성 또는 월성이라고 불렸으며, 문헌과 여기서 출토된 기왓장의 글씨를 통하여 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고려후기부터 반월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지금까지 반월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달모양처럼 보이나요? 반월성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반달모양으로 보인답니다.</p>
<p>월성</p>	<p>석탈해의 지혜</p>	<p>석탈해왕은 왕이 되기 전에 토함산에 올라 넓고 넓은 서라벌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예쁘게 반달같이 생긴 모양의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곳에 집을 짓고 살면 오래도록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석탈해는 산을 내려와 그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이미 호공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호공은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p> <p>그래서 석탈해는 머리를 썼죠. 밤사이 몰래 집주변에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는 솥과 솥돌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호공을 찾아가서 그곳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은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석탈해에게 어떻게 그곳이 할아버지가 살던 곳인지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대장장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곳에 가 계시는 동안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p> <p>재판장님께서 땅을 파서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p> <p>과연 석탈해의 말대로 대장장이가 쓰는 솥과 솥돌이 나왔습니다. 한명은 증거가 있고 한명은 증거가 없으면 누구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나요? 이렇게 해서 석탈해는 원하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p>
	<p>옛날 월성은 어떤 모습?</p>	<p>월성은 왕들이 생활하던 왕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석탈해왕이 살 때 까지 월성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월성은 5대 파사왕때 궁궐을 지어 정궁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성이라고 하면 유럽이나 일본의 반듯 반듯한 건축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월성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토성입니다. 성곽만 쌓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해자를 둘러 더욱 철저하게 방어를 하였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것은 성곽 주위에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가득 채워 적들이 가까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p> <p>남쪽으로 흐르는 자연물길인 남천은 월성을 보호하는 천연의 해자입니다. 동,서,북쪽은 인공적으로 웅덩이를 파서 해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p> <p>최근까지도 북쪽에는 두개의 연못이 남아 있었는데 해자의 흔적이라고 합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석빙고	석빙고의 이용	<p>월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라시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로 사용했던 석빙고가 있습니다. 신라의 옛 궁궐이었던 월성 안에 있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석빙고는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신라시대 사람들이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증왕 때의 기록을 보면 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냉장고의 역할을 하는 석빙고와 비슷한 창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냉장고가 없었으니 얼음을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한다면 오랫동안 음식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청에서 얼음을 쓰기 위해서 석빙고를 곳곳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이 월성에 있는 석빙고입니다.</p>
	석빙고의 또 다른 이용	<p>조선시대에 고을마다 얼음을 저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약재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여름철에 열병이 돌아 몸이 불덩이 같이 열이 날 때 그 열을 식히기 위한 얼음찜질용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물품으로 얼음을 썼는데 집안의 지체나 계급의 고하에 따라 분배량을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p>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	<p>석빙고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석빙고가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적인 구조 덕분입니다.</p> <p>첫째 환풍구입니다. 얼음이 물로 변하지 않고 바로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는데, 이 수증기가 벽에 닿으면 물방울이 되어버립니다.</p> <p>수증기가 물이 되면 열을 내 놓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수증기를 바깥으로 빼 주는 구멍이 바로 환풍구입니다. 둘째 흡과 잔디입니다. 흡과 잔디가 햇빛에 돌이 달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석빙고 안의 온도가 늘 일정하게 되는 거죠. 또한 빗물에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내부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날개에 겨울바람이 부딪히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석빙고 천장은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동글게 쌓아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마련된 공기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석빙고 안을 시원하게 해 줍니다.</p> <p>마지막은 바로 석빙고 내부의 기울어진 바닥입니다. 얼음이 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얼음을 더 빨리 녹게 만듦으로 빨리 밖으로 빼 주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바닥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분황사	분황사	<p>분황사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위한 절입니다. 분황이란 부드럽고 향기로운 황제란 뜻을 담고 있는데 황룡사가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절이었다면 분황사는 왕실의 안녕을 비는 절이었습니다.</p> <p>현재 사찰내에는 모전석탑, 보광전, 우물, 비석받침대가 남아 있어요.</p> <p>분황사에서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바로 모전석탑입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모전석탑은 신라시대에 세워진 탑 중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모전석탑이란 돌을 벽돌처럼 깎아 쌓은 탑입니다. 원래 벽돌은 흙을 구워 만드는데 이것으로 탑을 만들면 전탑이라고 합니다. 모전석탑이란 벽돌이 아니라 돌을 벽돌처럼 깎아 쌓은 것을 말합니다. 모전석탑을 보시면 자연적으로 된 기단 위에 네 마리의 돌사자를 배치하였고 무척 힘이 센 모습을 한 인왕상이 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서진 것을 일제 강점기 때 수리했는데 탑 안에서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병모양의 그릇 실패와 바늘 침통, 가위 등이 발굴되었답니다.</p> <p>원래 신라 분황사 뒤담 바깥 우물에서 목이 잘려진 석불상 등 모두 스무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조선시대 때 송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면서 일부러 파손하여 우물 속에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우물로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분황사 우물은 나라를 지키는 용이 살아있던 곳이라 하여 호국변어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은 있지만 식수로 사용하지 않아요.</p> <p>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친필이 새겨져 있는 비석 받침대인데요, 아쉽게도 비석은 남아 있지 않아요.</p> <p>이밖에도 원효가 이곳에서 <<화엄경소>>을 썼다고하고, 절의 왼쪽 건물에 있었던 솔거가 그린 천수대비벽화는 매우 영험이 있어서 눈먼 여자 아이가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p>
황룡사지	황룡사지	<p>자, 여기는 신라의 위대한 유산이었던 황룡사라는 절이 있던 곳입니다.</p> <p>지금은 절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지만 바로 선덕여왕께서 세운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던 곳이기때 더욱 유명합니다. 이곳의 면적이 2만 4천여 평으로 보통 야구장의 다섯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p>진흥왕 때 늪지를 메워 궁궐을 지으려고 했던 곳인데 갑자기 황룡이 나타나자 신기하게 여긴 진흥왕은 계획을 바꾸어 사찰을 짓기로 하였답니다. 황룡사9층목탑은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자장법사가 신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선덕여왕에게 요청해 만들었습니다. 645년에 완공되었지만 220년이 지나 기울어진 것을 경문왕 때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1238년 고려 시대에 몽고의 침입으로 황룡사가 불탈 때 소실되었습니다. 탑 각 층에는 신라가 당시 주변 아홉 나라를 물리치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황룡사지	황룡사지	<p>당시 신라는 끊임없는 주변 국가들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탑을 세우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부처님께 기도했으며 모든 신라인의 영원을 황룡사 탑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탑을 완공한 후 신라의 왕들은 9층까지 올라가 경주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보며 강대한 신라를 꿈꾸었겠지요.</p> <p>황룡사 9층 목탑에 얽힌 설화를 들려 드릴게요.</p> <p>황룡사 9층목탑을 세울 것을 제안 받은 선덕여왕은 신라의 건축기술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백제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열심히 신라에서 목탑을 만들고 있었는데 탑의 중심기둥을 세우기 전날 밤 백제가 멸망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는 불길한 마음에 이 탑을 완성하면 조국 백제에 역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탑을 만들 수 없어서 백제로 돌아가려 했지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늙은 스님과 거인이 나타나 탑의 중심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놀란 아버지는 탑을 세우는 일이 부처님과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3년 만에 탑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15년 뒤 백제는 신라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p>
안압지	안압지의 유래	<p>안압지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후 그 기념으로 새운 별궁입니다. 동궁의 중심 건물은 임해전이며 이 건물 주변에 연못을 파고 연회를 베풀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연못과 정원을 꾸였습니다.</p> <p>안압지의 원래이름은 월지, 즉 달 못입니다.</p> <p>신라가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 준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궁궐의 주인은 없어지고 집은 허물어져서 점점 폐허가 되었습니다. 못 속에는 수초들만 무성히 자라는데 날아가던 기러기와 오리들이 수초 사이로 먹이를 찾자 이 모습을 보고 오리와 기러기가 먹이를 찾는 못이라고 하여 기러기안(雁), 오리압(鴨), 못지(池) 자를 써서 안압지라 부르기 시작 하였답니다.</p>
	안압지 구조	<p>안압지는 신라인들이 바다를 꿈꾸며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입니다.</p> <p>우리가 바다를 한눈에 다 보지 못하듯이 안압지 어디에서도 한눈에 연못을 다 볼 수 없도록 설계했으며 바다의 섬과 해안선 절벽을 연상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라 안에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는 매우 아름다운 연못과 궁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안압지	<p>안압지의 구조</p>	<p>안압지와 주변의 건축지들은 당시 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동궁인 임해전의 확실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건물터의 초석이 발굴되었습니다. 연못 안에는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섬이 세 곳 있으며 안압지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수부는 물을 끌어들이는 장치를 한 곳으로 정원 못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북이를 음각한 것 같은 아래위 4개의 수조가 필터역할을 하게 하고, 물이 썩지 않게끔 자연석 계단으로 작은 폭포를 만들어 흘러보내 연못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위 수조에는 용머리 토수구를 설치하여 용의 입으로 물을 토해서 아래 수조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용머리는 없어지고 지금은 용머리를 끼운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입수부를 통해 들어온 물은 연못 안 세 곳의 인공 섬에 부딪혀 곳곳을 굽이 돌아 3단으로 된 나무 마개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출수구로 흘러나가게 되어있습니다.</p> <p>현재 3개 건물을 복원시켰으며 출토된 유물들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안압지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p>
안압지	<p>선조들의 놀이</p>	<p>우리나라 고대 유물 중에는 목제품이 많지 않죠. 그런데 1975년에 안압지를 발굴하던 중 연못 바닥의 갯벌 속에서 주령구라는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14면 주사위가 발견되어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참나무로 만들어진 이 주사위는 정사각형 모양의 면이 6개, 육각형 모양의 면이 8개 있었고 주사위의 각 면마다 네 글자정도씩 새겨져 있습니다.</p> <p>잔치 때 흥을 돋우는 왕실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이것을 굴려서 위로 나타나는 면에 쓰인 글의 내용에 따라 벌칙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p> <p>임금님도 술 세잔 한 번에 마시기가 나오면 폭탄주를 마셔야 했겠죠?</p> <p>내용 - 술 세잔 한 번에 마시지,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마시기, 소리 없이 춤추기,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아무리 놀려도 화내지 않기, 우리 같이 못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p> <p>신라의 달밤은 물속에 거꾸로 비친 정자들의 모습이 더해서 더욱더 환상적입니다.</p>
성덕대왕 신종	<p>이름의 유래</p>	<p>제 뒤에 있는 이 종은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손을 들며) 세 이름 모두 다 알고 계신분이 있나요?</p> <p>성덕대왕신종 - 첫 번째로 이종은 성덕대왕신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덕대왕시절에는 전쟁도 없고 흉년도 들지 않아 사람들이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왕의 덕이 커서 평화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성덕대왕 신종	이름의 유래	<p>그래서 왕이 돌아가신 뒤 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 그 아들 경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그 아들의 아들인 혜공왕대에 이르러서야 완성했다고 합니다. 종의 앞 뒷면에 보이는 1024자의 한자로 쓰여진 명문에는 종의 이름이 성덕대왕신종이라는 것과 종을 찬양하는 내용, 종을 만든 사람의 이름 등이 써져 있습니다.</p> <p>에밀레종 - 두 번째로 이 종은 만들 때 아이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여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p> <p>종을 만드는 일은 국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12만근이나 되는 구리를 모으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이 시주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도 시주를 받으러 갔었는데,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이 나와 “우리집은 가난하여 시주할 것이 없으니 이 아이라도 데려가려거든 데려가시오.” 라고 희롱조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만 돌아왔다고 합니다.</p> <p>많은 사람이 고생하여 종이 완성되고 드디어 종을 치는데, 종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밤 스님은 꿈에 “그 아이를 넣어서 만들어야 종이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고민하던 스님은 결국 그 아이를 빼앗아 와서 종을 만드는데 넣었다고 합니다. 종이 완성되어 치자 “에밀레~”라는 구슬픈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p> <p>그러면 과연 종을 만들 때 아이를 넣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p> <p>종 안쪽의 우둘두둘한 부분중 불필요한 부분을 아~주 조금 떼어내어 성분분석을 해본 결과 이종에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나와야 할 성분인 뼈를 구성하는 인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p> <p>봉덕사종 - 세 번째 이름은 봉덕사 종입니다. 이종은 만들어져 가장 먼저 나라의 사찰인 국찰 봉덕사에 걸어졌다고 하여 봉덕사 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종을 만들 때 아이를 넣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봉덕이라서 봉덕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p>
	종의 이동경로	<p>봉덕사에 걸려있던 이종은 조선시대 큰 홍수로 봉덕사가 물에 떠내려 가면서 북천 모래밭에 묻혀있던 것을 영묘사에 옮겨다 걸었다고 합니다. 영묘사가 큰 화재로 소실되면서 경주읍성 남문 근처 봉황대에 종각을 짓고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여닫는 시간과 정오를 알리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1915년 경주문화원(구박물관)이 건립되면서 구박물관으로 옮겼다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관광활성화 계획에 의해 1975년 이곳에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종각을 새로 짓고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성덕대왕 신종	<p>옮기는 과정의 에피소드</p>	<p>종을 옮기는 과정은 대단히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꽃으로 장식한 가마에 싸서 수만명의 인파가 따르는 장관을 연출했다고 합니다.</p> <p>당시 경주시의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주변에서 모여든 인파가 무려 15만명이었다고 합니다.</p> <p>종의 무게가 18.9t에 달했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옮길 수 없어서 대한통운의 트레일러를 빌려 옮기는데, 종의 무게와 트레일러의 무게 때문에 다리가 무너질 수 있어서 가까운 거리를 두고 4Km를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p> <p>노인들 중에는 복을 받기 위해 종을 잡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박물관장님은 광목천을 사와서 연결해서 트레일러 뒤에서 잡고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p>
	<p>종고리 실험</p>	<p>새로지은 종각에 어울릴 수 있게 포항제철에서는 독일과학자와 카이스트 박사님들의 자문을 받아 용머리 모양을 장식한 멋진 종고리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박물관장님은 종을 달기 전에 새로만든 종각과 종고리핀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포항제철에서 25톤짜리 철판을 빌려와 매달아 보았다고 합니다.</p> <p>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종의 무게가 더 무거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할 때 아침저녁으로 밀어 보았다고 합니다.</p> <p>그렇게 밀기를 며칠을 하였더니 일주일만에 종각은 멀쩡하였으나 종을 달았던 종고리의 핀이 V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p> <p>그래서 종고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해결책을 구해보았으나 핀의 굵기를 더 굵게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핀의 굵기를 굵게 하기 위해서는 종을 훼손해야만 했습니다.</p> <p>고민이 이어지던 며칠만에 의외의 곳에서 답이 나왔습니다.</p> <p>과거 봉덕사, 구박물관에 걸었을때 사용하던 핀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모두 무릎을 치며 찬성했다고 합니다.</p> <p>그런데 종을 가져올 때 신종은 신주단지 모시듯 가마를 태워 먼 거리를 돌아서 왔지만 새로만든 핀 때문에 예전의 핀은 구박물관에 버려두고 왔었습니다. 부랴부랴 핀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 핀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p> <p>누가 가져갔을까요?</p> <p>경주시내 고물상을 전부 뒤졌더니 고물상 한곳에서 마침 녹이지 않고 가지고 있어 가져다가 신종을 걸었다고 합니다.</p>
	<p>핀의 과학</p>	<p>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 핀을 그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당시의 과학자들은 궁금하여 X-ray같은 비파괴 검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비파괴검사 장비에 비친 핀의 모양은 속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p> <p>성덕대왕신종 고리의 핀은 쇠를 한번에 붓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얇은 철판을 돌돌 말면서 두드려 만들었기 때문에 가늘지만 무거운 무게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성덕대왕 신종	<p>종소리 녹음</p>	<p>비파괴 검사 장비를 가져온 김에 종고리 핀 뿐만 아니라 종도 한번 검사를 해 보자 하여 사람들은 종도 검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1200년 이상을 쳐 온 종이다보니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어 종의 보존을 위해 더 이상 종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 <p>그러면 후세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종을 쳐서 후세사람들에게 전해줄 소리를 녹음하자는 의견에 녹음을 해서 확인하려고 종소리를 들어봤더니 “댕~”하는 소리와 함께 “뽕뽕”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p> <p>그래서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시간대에 녹음을 하자 하여 녹음해서 소리를 확인해 보았더니 “댕~”하는 소리와 함께 “멍멍”하는 개짖는 소리가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p> <p>그래서 종각을 중심으로 사방 4Km내의 개들은 전부 한곳에 모아두고 녹음을 해서 세 번만에 녹음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p> <p>종 소리는 30분마다 뒤쪽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p>
	<p>종소리와 맥놀이현상</p>	<p>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는 세계 어떤 종도 따라올 수 없는 종소리라고 합니다. 웅장했다가 애달팠다가 잔잔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타종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은 맥놀이 현상 때문입니다.</p> <p>맥놀이 현상은 두 개 이상의 소리가 서로 간섭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림처럼 같은 파장을 가진 두 개의 소리는 소리만 두배로 커지지만 다른 파장을 가진 두 개의 소리는 완전히 다른 파장을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잘 이해는 안되시더라도 그림처럼 들리는것은 아시겠지요?</p>
	<p>종의 예술성</p>	<p>이 종은 크기나 무게면에서도 대단하지만, 표면에 장식된 문양에서 예술성과 상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래 위로 장식된 덩굴은 당초라는 불교세계의 꽃으로 당장이라도 종을 휘감을 것 처럼 생생합니다.</p> <p>신라시대 사람들은 천원지방이라고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문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둥근 종의 몸체는 하늘을 상징하고 종 상부의 네모진 네 개의 상자는 사방의 땅을 상징합니다. 용이 새겨진 천정은 바다를 상징하는듯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을 나는 비천이 장식되어있는데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p> <p>땅과 하늘 바다가 모두 성덕대왕신종 하나 안에 있으니 성덕대왕신종은 온 우주를 품었다고 할 수 있겠죠?</p>

해설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성덕대왕 신종	신라종의 특징	<p>종은 크게 서양종, 동양종으로 나뉩니다. 서양종은 종부랄이 종안에 있어 종을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동양종은 밖에서 칩니다. 두 개밖에 없을 줄 알았던 종이 세 종류라고 합니다. 코리안 벨, 신라종은 학명도 따로 나뉩니다.</p> <p>동해바다 용왕에게는 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좋아해서 비석 받침대에 새긴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불을 좋아해서 화로에 새긴다고 합니다. 피를 좋아하는 아들은 칼에 새긴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 포뢰룡은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겁이 많아 잘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동해바다에는 용왕의 아들을 잡아먹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고래가 바로 그 동물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포뢰룡은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고래인가 싶어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을 고래고래 소리친다고 하죠?</p> <p>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전파되고 범종이 만들어지면서 동양종에는 포뢰룡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종을 치는 당목도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p> <p>그런데 신라종에 새겨진 용은 조금 다른 용입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은 죽어서 신라를 지키는 호국용이 되겠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문무왕 이후 8세기에 제작된 신라종들은 모두 두 마리 용이 아닌 한분의 문무왕을 새겨넣습니다. 문무왕과 함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는 만파식적을 새기고 있습니다.</p>
	큰 종 만들기의 어려움	<p>큰 종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 러시아의 짜르대종은 지금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유의 종은 첫 타종식때 깨져버렸고, 짜르 대종은 만들면서 깨져 한번도 소리를 내지 못한 종으로 더 유명합니다.</p> <p>우리 조상들은 1200년전에 최고로 예술적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으신가요?</p>